

전남 ‘새청무’ 재배면적 전국 1위…‘쌀 명품화’ 속도 낸다

9만 6000㏊로 4년 만에 두 배 증가…6500억 원 소득 기대
GS25·CJ 등 외식·유통업체 원료곡 선정…17개국 수출

전남도의 ‘쌀 명품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남도가 자체 개발한 ‘새청무’는 도입 4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자리 매김하며 전남 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전남농업기술원 등 따르면 ‘전남 쌀 이미지 개선 및 명품화 사업 2차’ 추진 결과 새 청무의 2025년 전국 재배면적은 11만 4000㏊(17%)로 전체 쌀 품종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0년 5만 1000㏊에 불과했던 재배면적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전남 지역 내에서는 9만 6000㏊가 재배돼 점유율 67%를 기록, 명실상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청무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품질과 재배 안정성에 있다. 중만생종인 새청무는 밥맛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벼가 쓰러지는 ‘도복’과 이삭에서 씩이트는 ‘수발아’에 강해 농가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다. 도정률 또한 76%로 우수해 미국종합처리장(RPC) 등 유통업체에서도 환영받는 추세다.

새청무가 가진 강점을 결국 전남 쌀 브랜드 파워로 이어졌다.

해남, 장흥, 영암 등 전남 10대 브랜드 쌀 중 9개 부문을 새청무가 석권했다. 또한 GS25 편의점 도

시락 원료곡으로 2만t(600억 원 규모) 납품이 결정됐으며, 이외에도 CJ(제일제당), 암샘김밥 등 대형 외식·유통업체와의 협약은 물론 전 세계 17개국으로 수출되는 등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하고 있다.

품종의 인기가 급격히 치솟으면서 종자 공급 부족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에 따르면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서 생산 가능한 보급종은 연간 3000t 수준이지만, 실제 국내 수요는 8000t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부족한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 선도 농가에서 생산한 고순도 종자를 농협이나 육묘장이 직접 구매해 농가에 전달하는 ‘자율교환’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는 올해 고순도 종자 506t을 생산해 전량 자율교환 방식으로 시군간 공급을 조절하며 농가의 종자 수요에 대응했다.

전남도가 새청무에 앞서 개발해낸 ‘강대찬’ 품종의 활약도 눈에 띈다. 강대찬은 한때 미질 문제로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최근 가공식품 시장에서 재발견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강대찬은 쌀알이 크고 쉽게 펴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동원F&B 등 식품업체에서 죽제 품원료곡으로 매우 선호한다”며 “기준 신동진 벼를



전남도는 최근 GS리테일과 전남 대표 쌀 품종 ‘새청무’ 쌀 활용 FF상품 출시와 안정적인 2만t 원료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대체하며 가공용 쌀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 쌀의 가치가 제고되면서 6500억 원(2025년 예상치)의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전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순도 종자 생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맞춤형 생산기술 교육을 강화해 전남 쌀이 세계적인 명품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2026 대표축제 10곳 선정…‘장흥 물축제’ 최우수

해외 교류 확대·지역 경제 도움… 전남 대표 축제 라인업 확정

전남도가 지역 관광의 핵심 자산인 ‘전남도 대표 축제’ 10곳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축제심의위원회를 열고 22개 시·군 대표 축제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최우수 축제로 선정하는 등 총 10개의 ‘2026 전남도 대표축제’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탐진강을 배경으로 한 참여형 콘텐츠의 안정적 운영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름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축제라는 평을 받았다. 특히 태국의 ‘송크란 물축제’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확장

성을 입증했으며, 야간 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경제 실익을 창출한 점이 주효했다.

우수 축제로는 ▲유자밭을 활용한 감성 체험으로 농가 소득을 견인한 ‘고흥 유자축제’ ▲차(茶) 산업과 관광을 체계적으로 연계한 ‘보성다향대축제’ ▲국화 전시의 높은 완성도와 가족 단위 타깃팅이 돋보인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목포항구축제 ▲광양매화축제 ▲당양대나무축제 ▲화순고인돌 가을꽃 축제 ▲해남미남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등 6곳이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전남 관광의 탄탄한 라인업을 구

성했다.

이번 선정은 관광·문화 콘텐츠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심의위원회가 축제의 정체성, 콘텐츠 완성도, 관광객 유치 가능성, 지역경제 피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전남도는 선정된 10개 축제에 대해 등급별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우수 축제 5000만 원, 우수 축제 각 3000만 원, 유망 축제 각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신청 자격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는 이달 중 사업 참여기업이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도 선보인다.

든든한 한끼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근로자가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3시)에 식당에서 점심값을 계산할 경우 금액의 20%를 지원해 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산단 근로자 천원에 아침밥 드세요”

도, ‘점심값 지원’ 시범 사업도

전남도가 쌀 소비 촉진과 도민의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1억 5000만 원을 들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남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한다. 산단 내 입주기업 중 식당 운영이 가능한 기업과 단체라면 사업에 지원 할 수 있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2000원)와 전남도(10000원), 기업부담(1000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인 근로자가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조로 설계됐다.

전남도는 이달 중 사업 참여기업이 선정되면 오는 2월부터 연말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도 선보인다.

든든한 한끼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섬박람회

전남도·박람회 조직위 등 협력 체계 가동

전남도가 여수·섬박람회 조직위원회 등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원팀 체제’를 가동, 전시·행사·안전·교통 분야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또 ▲주 행사장과 전시공간 조성 ▲전시·연출·콘텐츠 ▲행사·공연·체험 프로그램 ▲홍보·관람객 유치 ▲국제협력 ▲안전관리·교통대책 등 박람회 전 분야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박람회 주 행사장 기반시설과 전시공간은 현재 40%대 공정으로, 오는 7월까지 주요 시설을 완공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 개막에

맞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외부 미디어파사드와 이마시브 전시를 결합한 박람회 상장 공간인 랜드마크(주제관)은 이번 달 착공하고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섬공동관 등 7개 전시관은 오는 4월까지 콘텐츠 제작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설치와 리허설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또 관람객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단체관람 유치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총 7800 면 규모의 주차공간 확보, 셔틀버스 주말 최대 60대 투입, 승용차·셔틀버스 동선 분리 운영 등을 통해 행사장 접근성 등을 높이기로 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김자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책으로 만나는 섬박람회

한국섬진흥원 ‘한국의 섬, 세계의 섬’ 출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미리 만나보고 세계 이색 섬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13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한국의 섬, 세계의 섬’(사진)을 발간, 전국 주요 관계기관에 배부하는 한편, 섬진흥원 누리집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했다.

‘섬’은 연 1회 발간되는 정기간행물로, 국내·외 다채로운 섬 이야기와 실용적인 섬 정책 연구 성과를 담은 섬 전문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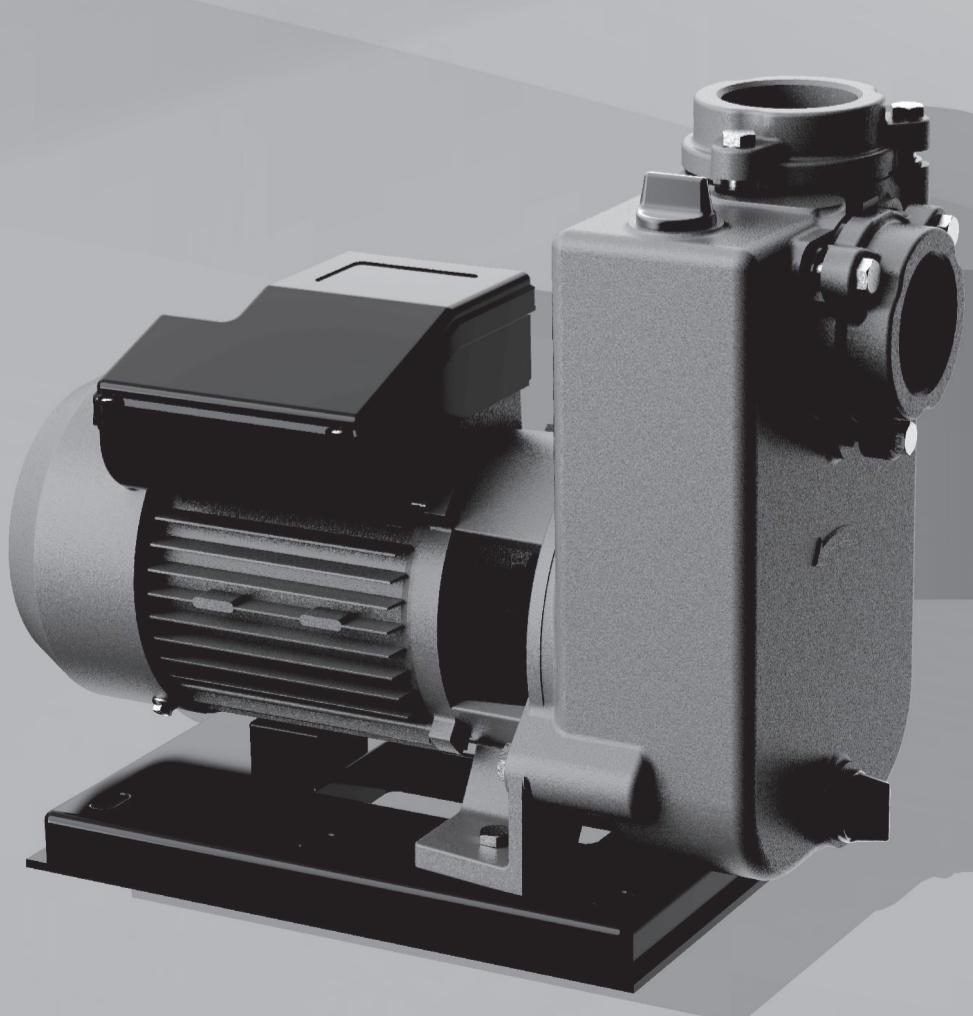
책은 섬 삶이를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한국의 섬’, 2026여수 세계섬박람회와 세계 이색 섬 사례를 소개하는 ‘세계의 섬’, 주요 섬 정책 등을 소개하는 ‘함께의 섬’으로 구성됐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는 “섬의 무한한 가치를 널리 알리는 소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자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월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월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

wilo